

전국체전 성화, 13일까지 전남 22개 시·군 누빈다



가을이 익어가네 10일 오후 화순군 백야면의 들녘이 수확기를 맞아 황금물결로 일렁이고 있다. /니명주기자mjna@kwangju.co.kr

도, 전국체전·장애인체육대회 성화 합화...도청서 화합 행사 147개 구간 봉송...김영록 지사 "성공 개최로 글로벌 도약"

제104회 전국체육대회와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성화가 10일 오전 전남도청 만남의 광장에서 합화돼 13일까지 22개 시·군 147개 구간을 누빈 예정이다. 지난 9일 해남과 고흥에서 특별 채화된 2개의 불꽃과 10월 3일 강화도 마니산과 목포에서 각각 공식 채화된 2개의 불꽃이 4개의 안전램프에 담겨 도청 윤선도홀에 안치됐다. 이날 합화식을 통해 전국(장애인)체전의 대장정을 알리는 하나의 성화로 합쳐졌다. 안전램프에 담긴 4개의 불꽃은 제104회 차를 맞는 전국체전의 의미를 담아 전남도민 104명이 네 개 갈래로 나누어 릴레이를 통해 도민 대표 4명의 손을 거쳐 최종 합화자 4명에게 전달됐다. 합화자

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박홍률 목포시장이다. 이번 합화식에는 전남 미래전략산업인 2차 전지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지역 기업 KC(주)의 박찬웅 연구원, 귀농 후 농업 분야에서 아열대 작물로 신 소득 모델을 창출하는 청년 강소기능인 신혜민씨, 대한민국 육상 단거리 유망주 전남체고 이다원 학생, 다문화 가정 육상 꿈나무 전남체고 나상우 학생 등이 도민 대표로 참석한다. 이날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응원단, 전남체육체육꿈나무 80명 등 500여 명이 함께 했다. 행사는 체전 성공을 기원하는 도민의 마음을 담은 소망벽돌 쌓기 퍼포먼스, 스포츠 치어리딩팀과 도립국악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안전램프 릴

레이, 성화 합화, 성화봉 점화 및 최초 봉송주자 인계, 봉송주자 출발 순으로 진행됐다. 합화된 성화는 13일 전국체전 개회식과 11월 3일 장애인체전 개회식 때 목포종합경기장 성화대에 점화돼 체전을 밝힐 불꽃으로 타오를 예정이다. 147개 구간은 104회 전국체전과 43회 장애인체전의 의미를 담은 것이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전국(장애인)체전이 15년 만에 전남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대회인 만큼 도민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며 "도민화합, 문화관광, 국민감동, 미래희망 체전으로 성공적으로 개최해 더 큰 미래로 도약하는 글로벌 전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체전은 '생명의 땅 전남, 함께 날자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국체전은 13일부터 19일까지 7일간, 장애인체전은 11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 22개 시·군 전역에서 펼쳐진다. /윤현석 기자 chadod@kwangju.co.kr

'빛'으로 수놓는 광주의 가을밤

시, 12~15일 광주교 일원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광주에서 빛의 축제가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12~15일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G.MAP)과 광주교 일원에서 2023 광주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2012년부터 열린 빛의 축제로 올해는 '빛도 꿈을 꾸는가?'라는 주제로 다

채로운 행사들이 마련된다. '어른 아이 모두의 놀이터, 미디어아트 놀이터',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 10개국 20명 작가가 함께하는 '넥스트 미디어아트의 눈', 시민공모전 수상작 상영 등이 주요 프로그램이다. 개막식에서는 G.MAP, 인근 회경루 일대에서 레이저쇼가 가을밤을 수놓는다. 보이는 라디오 콘

서트, 전자댄스음악(EDM) 콘서트, 뮤지컬 갈라 콘서트, 버스킹 콘서트 등 축제 기간 '4일 4색' 공연도 선보인다. 광주전면 축제행사장에 설치된 미디어아트 놀이터에서는 체험 부스를 운영해 증강현실, 미술 놀이, 작곡 체험 등을 즐길 수 있다. 융복합 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기획 전시, 학술 심포지엄 등도 열린다. 광주시 관계자는 "광주가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된 지 12주년을 맞아 미디어아트 전 수상작 상영을 개최해 나가고 있는 광주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신세계 백화점 확장' 입장차 여전

3자 협의체 첫 회의...지구단위 계획 심의 앞 내일 2차 회의

광주 신세계 백화점 확장 이전과 관련해 소상공인과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서 마무리 됐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와 광주신세계, 인근 상가인 금호월드 등 3자 협의체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예상보다 긴 2시간 40여분 동안 이어진 회의에서는 기존에 금호월드 측이 제시한 협의안 등 상생 방안과 관련한 대화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자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앞서 금호월드 측은 금호월드 건물 매입, 건물 공동 재개발, 3자 협의체 구성 등 3가지 협의안을 제안했으며, 광주신세계는 3자 협의체 구성을 제외한 나머지 2가지는 거부했다. 3자 협의체는 개별적인 논의를 거쳐 12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백화점 확장 이전에 필요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수립 안전에 대한 시 도시계

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가 오는 13일로 예정돼 심의에 앞서 의미 있는 합의가 도출될 지 주목된다. 광주신세계는 현 백화점 옆 이마트 부지, 옛 모델하우스 부지를 합쳐 '신세계 아트 앤 컬처 파크'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도시관리 계획 입안을 신청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기존 백화점의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지하차도 기부 채납, 인근 금호월드 포함 주변 민원 적극 해소 등 모두 9개 조건을 내걸어 지난 3월 말 입안에 동의한 상태다. 하지만 이후 광주시가 갑자기 금호월드측 민원 등을 이유로 행정 절차 진행을 미루면서, 신세계그룹 차원의 사업 무산설 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만남에서 3자 협의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의의를 두고, 두 번째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케이푸드 융복합산단 개발

전남도-전남개발공사 업무협약

전남도는 10일 도청에서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장충모 전남개발공사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케이푸드 융복합산단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협약에 따라 전남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로 재원 확보, 기업 투자유치 지원 등을 통해 무안에 케이푸드 융복합 산업단지 개발에 나서게 된다. 전남도와 무안군, 전남개발공사는 무안의 풍부한 농업 기반시설과 우수한 교통망, 무안국제공항을 통한 국제 물류기반 시설을 활용해 전남의 우수 농수산물 가공 산업과 애그테크 관련 연구개발(R&D) 및 산업화 집적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해상풍력, 태양광발전 등 풍부한 재생 에너지를 바탕으로 한 RE100 산단으로 구축할 방침이다. 스마트 자동차 물류 플랫폼, 데이터센터, 정보통신기술(ICT) 연관 산업 스마트 제조단지 등 통합서비스 단지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자연도, 부모님도
사랑합니다.

수목장(자연장)을 무료로 안치해드립니다.
(회원에 가입 한 분에 한함)

광주수목장 문의 062.449.4446